

미국 언론의 언어투쟁과 미국 (국제)정치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

정성원**

I. 서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언론의 자유가 부재한 곳에서는, 즉 언론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곳에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고 민의가 조작되기 쉽다. 언론의 자유가 부재하거나 제한받는 상황에서라면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또한 훼손되기 십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1787년 자신이 쓴 한 편지에서 자유로운 언론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신문이 없는 정부를 가져야 할지 아니면 정부 없는 신문을 가져야 할지가 자신의 결정에 맡겨진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유명한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¹⁾ 이처럼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 이래 언론의 자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 대한 일종의 통제 장치로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에서 일수록 언론의 자유 또한 잘 보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위협받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5일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 추계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뉴욕시립대

1)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d were it left to m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have a government without newspapers or newspapers without a government, I should not hesitate a moment to prefer the later." 원문은 http://oll.libertyfund.org/?option=com_staticxt&staticfile=full_quote.php%3Fquote=302&Itemid=27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위협에 처해 있음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과 함께 현대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원칙들을 구성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언론의 자유 아래서 언론 매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걸까? 언론 매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걸까? 이런 영향은 어떠한 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언론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언론 자유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미국의 언론 상황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리스트 공격 이후 개시된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들이 미국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이라크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데는 미국 언론 매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특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를 테러로 인해 잃은 미국인들에게 탈레반 집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은 필연적인 조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200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전은 분명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미국 내부로부터 또 미국 외부로부터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대중들의 지지를 업고 시작될 수 있었다.²⁾ 주류 언론 매체들 덕분이었다. 자유로운 미국 언론 매체들은 9/11의 배경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의문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즉각적인 군사작전으로부터 이후 이라크에서의 군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만을 대중들에게 충실히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지금의 전

2) 물론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여론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부정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2003년도 개전 연도에 Gallup사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가 무려 75%에 달하며, 다음해인 2004년도에도 60% 수준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지지도 변화 도표는 <http://www.gallup.com/poll/1633/Iraq.aspx>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온 바로 그 전쟁으로 미국을 몰고 들어가는 데 이들이 자신들의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일조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미국 언론의 상황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는 언론 매체들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수립된 공동체 전체에 항상 이익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2000년대 미국에서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이 어떤 자유를 누렸으며, 이 자유를 통해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 언론자유 의미와 2000년대 추세: 편견 표출의 자유와 보수주의 매체의 득세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좋은 통치(governance)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 인정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 국가의 통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통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는 발언권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통치이며, 그렇기에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³⁾

미국도 상대적으로 좋은 통치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는 1791년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가 종교, 표현, 언론의 자유와 함께 결사와 청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이래, 미국 민주주

3) 세계은행은 각 국가의 통치(governance)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6가지 기준 - 발언권과 책임성 (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 질 (regulatory quality), 법치 (rule of law), 부패 통제 (control of corruption) - 중 첫 번째인 발언권과 책임성이라는 차원은 실제로 한 국가의 시민이 얼마나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자유 정도를 가지고 측정된다. 이 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를 참조할 것.

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⁴⁾ 더군다나 미국은 언론의 자유에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미 193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법률은 다른 대부분 유형의 법률보다 더 엄격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⁵⁾ 실제로 미국의 법원은 기자, 편집자, 언론사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언론의 자유를 미국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확인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표 1이 보여주듯이, 국경 없는 기자회견

표 1. 미국 출판 자유도 순위 (2002-2012)

연도	순위	
	국경 없는 기자회견	프리덤 하우스
2002	17	16
2003	31	17
2004	23	13
2005	44	17
2006	53	16
2007	48	16
2008	36	17
2009	20	18
2010	20	19
2011	47	17
2012	47	18

출처: 국경 없는 기자회견 순위는 en.rs.org에서 각 연도별 순위를 취합한 것임.

프리덤 하우스 순위는 [http://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OTP%20 Score%20and%20Status%201980-2012.xls](http://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OTP%20Score%20and%20Status%201980-2012.xls) 에서 취합한 것임.

- 4) 미국 헌법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는 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html을 참조할 것.
- 5) 당시 이 소송은 탈지유에 원래 유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을 첨가한 치환유(filled milk)의 주간(interstate) 유통을 금지한 연방법을 둘러싸고 캐롤린사가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것이었다. 이 소송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판결문에 딸린 4번 각주(Footnote Four) 때문이었는데, 이 각주에서 경제적 규제에는 최소한의 법적 검토만이 적용되지만 미국 수정헌법 조항을 표면상 위반하거나, 정치과정을 왜곡시키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mpany*, 304 U.S. 144 (1938)를 참조할 것.

(Reporters without Borders)의 기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부시 집권기 동안 미국의 출판자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후퇴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분명히 언론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도화된 언론의 자유를 통해 각 언론 매체들이 누리는 자유란 실제로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에서의 언론자유는 오늘날 각 매체들이 자신들이 가진 세상 또는 현실에 대한 편견(bias)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 언론 매체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평하거나 중립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대중들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양한 뉴스거리들 중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하나를 선별하여 뉴스 방송의 첫머리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신문 첫 면에 늘어놓음으로써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각기 중요성을 부여하고, 또 해설이나 사실 등을 통해 이 일들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의미 등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각 언론 매체들이 내놓는 뉴스들은 뉴스를 취합하고 보도하고 해석하는 언론 매체 종사자들의 사고나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언론이 갖는 이 같은 특성에 주목하면서, 미국 언론 매체들이 특정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기실 각 매체들이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사건도 매체에 따라 전달되는 방식이나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미국 언론 매체들이 갖는 편견에 주목하고 있는 학자들은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자유주의적 편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사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이미 주장했다.⁶⁾ 이 추세는

6) 대다수의 미국 언론종사자들은 일반 미국대중들의 평균적 자유주의 성향보다도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며, 이런 편견이 기사보도에도 반영된다는 연구로는 S. Robert Lichter, Stanley Rothman, and Linda S. Lichter, *The Media Elite: America's New Powerbrokers* (New York: Hastings House, 1986); Elaine Povich, *Partners and Adversaries: The Contentious Connection Between Congress and*

그로시클로즈(Groseclose)와 밀리오(Milyo)의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폭스뉴스(Fox News)와 워싱턴 타임즈(Washington Times)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자유주의적 편견(liberal bias)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에서 이 매체들이 보여주었던 입장으로 볼 때 크게 과장된 것이라 폄하할 수만은 없지 않다.⁷⁾ 이들이 측정해낸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편견 지수는 표2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편견에 따라 이 매체들을 좌우로 늘어놓으면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설사 자유주의적 또는 좌파적 편견이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다하더라도, 2000년대 미국에서의 언론 상황은 미국 대중들이 주로 좌파적 편견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2000년대 들어와 보수주의적 편견이 더 강력하게 또 더 광범위하게 미국 대중들을 상대로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인 러쉬 림보 쇼(The Rush Limbaugh Show)를 들 수 있다.⁸⁾ 1984년 프리미어 라디오 네트워크(Premiere Radio Networks)를 통해 방송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서서히 인기를 끌면서 1988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기 시작했고, 결국 1500만 명의 청취자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토크쇼로 성장했다. 림보는 자신의 라디오 쇼를 보수적인 정치이념과 보수주의 정치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고 자유주의적 이념과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데 이용해 오면서 청취자 수를 늘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e Media (Arlington, VA: Freedom Forum, 1996); 그리고 D.H. Weaver and G.C. Wilhoit, *American Journalist in the 1990s* (Mahwah, NJ: Lawrence Erlbaum, 1996) 등을 볼 것.

7) Tim Groseclose and Jeffrey Milyo, "A Measure of Media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0, No.4 (2005), 1191-1237. 그로시클로즈는 이 논문에서의 주장을 확장시켜 책으로 출판했다. Tim Groseclose, *Left Turn: How Liberal Media Bias Distorts the American Mind*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1).

8) 림보와 그의 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rushlimbaugh.com을 볼 것.

표 2.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의 정치적 편견 (0에 가까울수록 보수, 100에 가까울수록 진보)

언론매체	편견 지수
ABC Good Morning America (ABC-G)	56.1
ABC World News Tonight (ABC-W)	61.0
CBS Early Show (CBS-S)	66.6
CBS Evening News (CBS-N)	73.7
CNN NewNight with Aaron Brown (CNN)	56.0
Drudge Report (DR)	60.4
Fox News' Special Report with Brit Hume (FOX)	39.7
Los Angeles Times (LAT)	70.0
NBC Nightly News (NBC-N)	61.6
NBC Today Show (NBC-T)	64.0
New York Times (NYT)	73.7
Newshour with Jim Lehrer (NJL)	55.8
Newsweek (NW)	66.3
NPR Morning Edition (NPR)	66.3
Time Magazine (TM)	65.4
U.S. News and World Report (UNW)	65.8
USA Today (UT)	63.4
Wall Street Journal (WSJ)	85.1
Washington Post (WP)	66.6
Washington Times (WT)	35.4
Average	62.6

출처: Tim Groseclose and Jeffrey Milyo, "A Measure of Media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20, No.4 (2005), 1212에서 취합한 것임.

그림 1. 미국 주요 언론매체의 상대적 정치적 지향성

좌

우

WSJ	NYT / LAT	CBS-S / NW/ WP	NPR	UNW	TM	NBC-T	UT	NBC-N	ABC-W	DR	ABC-G	CNN	NJL	FOX	WT
-----	-----------	-------------------	-----	-----	----	-------	----	-------	-------	----	-------	-----	-----	-----	----

하지만 그의 쇼는 동시에 많은 논란을 미국에서 야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2007년 9월 21일 송출된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참전군인들을 “가짜 군인들”(phony soldiers)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2009년 1월 16일자 쇼에서는 “[오바마]가 실패하기를 희망한다”(I hope he fails)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당연히 그가 가진 보수주의적 편견이 여과되지 않은 채 표명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표 3이 보여주듯이 2000년대 들어와 보수적인 폭스뉴스채널(Fox News Channel)이 경쟁사인 CNN이나 MSNBC, HLN 등을 제치고 9/11과 이라크 전을 틈타 확산된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2000년대 들어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뉴스 방송사로 성장하기도 했다. 일반 시청률에서 이미 역전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도라 할 수 있는 CNN이 그래도 속보(breaking news)를 전할 때면 다른 채널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케이블뉴스 방송채널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발발하던 2003년을 기점으로 속보 시청률마저

**표 3.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미국 주요 케이블 뉴스방송사별
황금시간대 시청자 수 중간값 (단위 1000명)**

연도	CNN	MSNBC	Fox News	HLN
2002	889	354	1,139	
2003	832	287	1,345	
2004	815	341	1,474	
2005	725	336	1,600	307
2006	710	361	1,376	302
2007	736	489	1,406	353
2008	1,052	767	1,793	434
2009	891	786	2,134	525
2010	564	747	1,909	434
2011	655	773	1,856	386

출처: Nielsen Media Research. 이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http://stateofthemediamedia.org/2012/cable-cnn-ends-its-ratings-slide-fox-falls-again/cable-by-the-numbers/>

도 역전 당했다. 이라크 전 개시 첫날 790만의 시청자가 폭스뉴스를 730만이 CNN 을 시청했으며,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을 때는 200만 명이 CNN 채널을 시청한 반면 230만 명이 폭스채널을 시청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실제로 폭스뉴스채널의 성장배경에는 이들의 표출하는 강력한 보수주의적 편견이 자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케이블뉴스 채널 시청자들이 폭스사가 전하는 보다 직설적인 보수주의적 목소리에 더 끌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폭스 뉴스 채널의 성장은 2000년대 미국에서 보수주의적 편견이 득세하게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지표가 된다고도 하겠다.

사실 그 어떤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사나 언론 매체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 언론 매체들은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며, 이들과 같은 편견을 공유하는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많아질수록 대중적 호소력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2000년대 미국 언론 매체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이 하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명시적으로 드러난 변화는 보수주의적 또는 우파적 매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우파적 매체들의 존재 때문에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었다거나, 또는 이들의 성장이 미국 사회의 우경화를 단순히 반영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 인과관계를 여기서 상세히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폭스뉴스 채널과 같은 보수주의 매체의 성장과 미국 사회의 우경화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함은 거의 직관적으로도 알아챌 수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다수의 주류 매체가 중도나 자유주의적 편견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우파적 또는 보수주의적 가치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대중들이 채널을 이런 매체들에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수주의적 매체의 성장 또한 다양한 편견의 표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이 분석에 대해서는 “2004 Annual Report-Cable TV Audience: Cable News and the War with Iraq in 2003,” (March 15, 2004)를 볼 것. <http://www.journalism.org/node/761>

Ⅲ. 미국 언론의 역할과 영향:

언어투쟁을 통한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과 그 정치적 함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통적으로 언론의 구체적 역할은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자신의 편견에 따라 기사를 선별하고 뉴스포제 등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대중들에게 호소한다. 언론 매체들의 호소가 대중들에게 잘 먹혀들어갈 수록 이들은 자신의 편견에 따라 선별한 문제들을 이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슈화가 성공하면 할수록 이들은 정책을 위한 의제설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에드워즈(*Edwards*)와 우드(*Wood*)는 미국 언론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의제설정(*agenda setting*)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기대에 따르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나 언론보다 더 큰 의제설정 능력을 갖기 마련인데, 미국에서는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 결정을 위한 의제설정에 언론이 대통령이나 의회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해 왔다는 것이다.¹⁰⁾ 언론은 이처럼 의제설정 능력을 통해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은 자신의 편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미국정치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각 언론 매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endorsement*)를 사설 등을 통해 표명하고는 하기 때문이다.¹¹⁾ 이 같은 언론 매체들의 지지가 투표인단에 미치는 영향에

10)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George C. Edwards III and B. Dan Wood, "Who Influences Whom? The President, Congress, and the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3, No.2 (1999), 327-344.

11) 이에 대한 연구로, Russell J. Dalton, Paul A. Beck, and Robert Huckfeldt, "Partisan Cues and the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2, No.1 (1998), 111-126. 보다 최근의 연구로 Stephen Ansolabehere, Rebecca Lessem, and James M. Snyder, Jr., "The Orientation of Newspaper Endorsements in U.S. Elections, 1940-2002,"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 No.4 (2006), 393-404.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표명된 언론사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은 투표에서 약 1에서 5 퍼센트 정도를 더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²⁾ 이는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의 차이가 경미할 때 선거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미국의 언론이 자신의 편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는 때때로 결정적인 정치적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전통적인 이해는 분명 경험적 연구와 데이터를 근거로 축적되어온 것이다. 언론은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제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더구나 언론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을 통해 선거결과까지 좌우할 잠재력도 지닌다. 쿡(Cook)이 표현하듯 언론 매체들은, 특히 미국 정치적 맥락에서, 또 하나의 “정치 제도”(political institution)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전통적 이해가 언론이 일반 정치과정 또는 미국정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이런 영향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언론 매체들의 활동과 의제설정이나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라는 인과성을 단지 상정하고 그것이 존재함을 그저 증명하고자 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이해는 대부분 어떻게 해서 언론 매체들의 인과성이 정치적 과정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 그 기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인식조차 상대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언론 매체들이 정치과정에서 갖는 인과성을 보다 충실히 이해하려면 언론과 그 언론에 노출되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 매체들이 가질 수 있는 의제설정 능력이나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12) 언론의 공개지지가 후보자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Ansolabehere, Lessem, and Snyder, “The Orientation of Newspaper Endorsements in U.S. Elections,” 394, 각주 2번을 볼 것.

13) Timothy Cook, *Governing with the New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미국정치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로는 Stephen Ansolabehere, Roy Behr, and Shanto Iyengar, *The Media Game: American Politics in the Television Age* (New York: Macmillan, 1993)과 R. Douglas Arnold, *Congress, the Pres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등을 참조할 것.

있는 능력은 이들이 전달하는 기사나 해석에 노출되고 또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정치과정으로 매개해 주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되어주는 대중들이 없다면, 즉 방송사나 신문사의 뉴스를 소비해 주는 이들이 없다면, 언론이 말하는 것들은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대중들이 각 언론 매체들이 전달하는 바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역시 뉴스시간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각 매체들이 표명하는 편견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언론의 인과적 힘은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매개가 없다면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이 대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전달하고 또 자신의 편견을 표명함으로써 대중들이 세상 또는 현실을 보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TV에서이든, 라디오에서이든, 또는 지면을 통해서이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 전달하기에, 이들의 역할은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sociolinguistic construction)이라는 측면에서 더 잘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매체들은 세상에 대한 소식, 또는 현실을 자신의 편견에 얹어 이를 말로써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이를 보다 많은 수의 대중들이 수용하게 될 때 바로 언론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편견표출의 자유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미국의 언론자유 하에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필연적으로 말싸움 또는 언어투쟁(verbal fighting)에 참여하기 더 용이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은 사전적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일련의 사실이나 상태로서 우리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미리 주어진(pre-given) 객관적(objective)인 실재(the real)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이런 객관적 또는 실재적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존재론적으로 말해,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작용을 통해 얻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가진 현실에 대한 지식은 그 경험적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항상 오류가능성(fallibility)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건과 사실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 또는 실재는 그 인식상의 오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의식에 수용되기 위해서 먼저 해석되고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아닌 오직 신만이 해석과 정리 작업 없이도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의 주된 역할은 사건의 보도라기보다는 바로 이처럼 복잡한 현실을 인간을 위해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언론 매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에, 현실에 대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해석과 정리 작업에 자신들이 가진 편견을 자유로이 투사함으로써 그 편견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또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해석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된 표2에서 보이듯, 사실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것처럼 다양한 또 차이가 명확한 해석을 만들어 내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각각의 정치적 편견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리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ve process)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 또는 소수의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해석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렴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수용하고, 이 해석에 따라 현실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이 해석은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서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결국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언어를 통해 전하는 현실이란 우리 인간이 가진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그

14) 실재와 인식간의 차이와 인식론의 한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이라고 불린다. 비판적 실재론자의 선구자로는 바스카를 들 수 있다. 바스카의 철학에 대해서는 Roy Bhaskar,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Berso, 1997)와 그의 *Possibility of Naturalism: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Human Sciences* (London: Routledge, 1998) 등을 참조할 것. 또한 Andrew Collier,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London: Verso, 1994)와 Andrew Sayer, *Re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SAGE, 2000) 등도 참조.

런 객관적 실재가 되기 어렵다. 현실이란 엄밀히 말 해, 단지 우리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실질적 진실(real truth)로서 집단적으로 수용한 실제로 발생한 사실들(facts)에 대한 어느 한 해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한 수렴과정이 기본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은 또한 언어적으로도 구성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실을 궁극적으로는 사회언어적(sociolinguistic) 구성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 그렇다면, 미국 대중들이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기반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현실의 많은 부분은 미국 언론 매체들의 말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계를 전자가 후자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선적인 관계로만 해석하기도 곤란하다. 2000년대 당시 다수의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이 바라보던 현실과 다수의 미국 대중들이 바라보던 현실에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2에 따르면 대다수 주류 매체들은 거의 일관되게 자유주의적 또는 중도적 편견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이 보여주듯 2000년대 들어와 다수의 자유주의적 매체들을 제치고 보수주의적 편견을 내세운 폭스뉴스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채널이 되었음은 미국 대중들이 자유주의적 편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중들이 언론 매체들의 편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했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편견을 보유한 다수의 매체가 보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폭스뉴스 채널 같은 보수주의적 매체는 낮은 시청률만을 기록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 대중들이 폭스뉴스 채널에 눈과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폭스뉴스 채널이 전하는 현실을 진실로 수용하게 된 대중들이 그만큼 증가했고, 동시에 다른 중도 또는 자유주의적 매체들이 호소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언론과 대중의 관계가 반드시 일방적이지만은

15) 현실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매턴(Mattern)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Janice Bially Mattern, “Why ‘Soft Power’ Isn’t So Soft: Representational Force and the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Attraction in World Politic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3, No.3 (2005), 585. 현실이 사회적 구성이라는 초기 주장으로는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66).

않으며, 대중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언론 매체를 취사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이 일방적으로만 수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것들이 대중들이 각자 정의하고 있는 존재론적 안정(ontological security) - 기든스(Giddens)의 정의를 빌면 '질서와 지속성이라는 감각'(a sense of order and continuity) - 을 뒷받침 해줄 수도 아니면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⁶⁾ 사실 누구의 현실에 대한 해석에 '진실'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렴과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객관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진실로의 수렴과정이 항상 하버마스(Habermas)가 말 하는 공론장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 설득, 합의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이다.¹⁷⁾ 많은 경우에서 현실에 대한 어떤 특정한 해석이 진실이라는 지위를 얻을 때는, 그것이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반영할 때가 아니라 상이한 다른 해석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이다.

상이한 해석들은 말로써 제시되기에 이들 간의 충돌과 경쟁은 말싸움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말싸움 또는 언어투쟁은 현실에 대한 서술적 묘사(narrative representation) 또는 서술구조(narrative structure)를 통해 행사되는 구상적 힘(representational

16) 사회과학 분야에서 존재론적 안정 또는 존재론적 안보를 최초로 적용한 연구자가 바로 기든스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과 *The Construc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등을 참조할 것.

17) 국제정치 구성주의 틀 내에서 하버마스로부터 영감을 얻어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버마스의 저작으로는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Street, 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7); 그리고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MIT, 1990)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논의로는 대표적으로 Thomas Risse,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1 (2000), 1-39; 그리고 Richard Ned Lebow, "Power, Persuasion and Justi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3, No.3 (2005), 551-581 등을 들 수 있다.

force)의 행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구상적 힘이 언어투쟁에 참여하는 화자들 간에 작동하기에 이들 사이에 합리적 토론이나 설득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들은 자신들에게 교수, 학생, 또는 기자 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언어적으로 구성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the Self)나 주체(subject)를 규정하고, 거기서 존재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¹⁸⁾ 이 경우,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현실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든 포기함은 결국 자신의 자아 또는 주체를 손상시키게 되는, 즉 존재론적 안정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사회언어적으로 구성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주체나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안정(ontological security)을 추구하는 한, 자신이 이해하는 현실에 대한 양보나 타협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부터 그 같은 양보나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대화나 토론 설득의 노력 보다는, 누가 제시하는 현실이 진실 또는 실재에 보다 부합하는 것인가 - 실제로 부합하든 안하든 - 를 놓고 구상적 힘의 행사를 통해 상대의 완전한 굴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투쟁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으로 선호되게 된다.¹⁹⁾

이러한 언어투쟁, 또는 누구의 이해를 현실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말싸움은 다분히 정치적 성격마저 띤다. 왜냐하면 이 투쟁의 결과

18) 존재론적 안정 또는 존재론적 안보에 대한 관심이 최근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 분야에서 기든스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대두하고 있는 중이다. 그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1990년대 들어와 물리적 안보 개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국가행위들을 존재론적 안보 개념으로 설명하는 연구들로는 Jef Huysmans, "Security! What Do You Mean?: From Concept to Thick Signifi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2 (1998), 226-255; Bill McSweeney,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Ian Manners, "European [security] Union: from existential threat to ontological security," *IIS Working Paper* (2002); Jennifer Mitzen,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 No.3 (2006), 341-370; 그리고 Brent J. Steel,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Routledge, 2008) 등을 참조.

19) 구상적 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이 개념을 적용한 연구로는 Mattern, "Why 'Soft Power' Isn't So Soft"과 Janice Bially Mattern,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y, Crisis and Representational Force* (New York: Routledge, 2005) 등을 참조할 것.

로 싸움에서 패배한 측은 승리한 측의 구상적 힘에 굴복함으로써 승자측이 해석하고 있는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런 굴복과 순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승자측의 통제(control)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다.²⁰⁾ 이런 과정을 거친 통제와 복종은 분명 상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강제적 권력(compulsory power)이나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의 결과라 할 수는 없다. 이보다는 패자측이 승자의 현실에 순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구조적 위치를 승자가 대표하는 현실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정의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주체(subject)를 이에 맞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내지 생성적 권력(productive power)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¹⁾ 말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있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 언론의 성장으로 대변되는 2000년대 미국 언론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적 편견이 자유주의적 편견과의 언어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한편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폭스뉴스 채널의 성장 자체는 분명 다수의 미국 대중들이 보수주의적 편견을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국 사회의 우경화나 2001년의 9/11 사태가 보수주의 매체의 성장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다.²²⁾ 그러나 보수주의 매체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수주의적 편견을

20) 정치를 권력 또는 인간행위에 대한 통제로 본 입장은 Karl W. Deutsch, "On the Concepts of Politics an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21, No.2 (1967), 232-241을 볼 것.

21) 권력개념 자체가 매우 논쟁적이긴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또 인과적인가 구성적인가에 따라 4가지, 강제적, 제도적, 구조적, 생성적 권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바넷과 듀발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1 (2005), 39-75.

22)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로 한 세대 만에 전반적으로 우경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 논의로는 John Micklethwait and Adrian Wooldridge, *The Right Nation: Conservative Power in Americ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4)를 들 수 있다. 보다 학술적인 저작으로는 Richard M. Abrams, *America Transformed: Sixty Years of Revolutionary Change, 1941-20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과 James T. Patterson, *Restless Giant: The United States from Watergate to Bush vs. G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등을 참조.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토설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보수주의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적 편견을 담은 언론 매체가 전하는 소식은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매체 중 폭스뉴스채널이 특히 이러한 구상적 힘의 구사와 말싸움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폭스뉴스사의 유명 방송인 중 하나인 글렌 벡(Glenn Beck)이 방송에서 내뱉은 말들을 들 수 있다. 그는 2010년 가을 자신의 토크쇼에서 세계적인 거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미국 공영방송인 NPR(National Public Radio)에 약 180만 달러정도를 기부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를 오바마 정권의 충실한 후원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2009년에는 “Fox & Friends”라는 아침 쇼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뜬금없이 오바마(Obama) 대통령이 백인 또는 백인의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진 인종주의자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²³⁾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진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지만, 어떻게 특정 편견이 세계 최고의 거부 중 한명이 사회주의자일 수 있고 또 반은 백인인 한 정치인이 백인을 증오하는 인종주의자일 수 있는 현실을 언어투쟁 속에서 구성해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요 방송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이 미국에 많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2000년대 미국 국제정치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과 언론

미국인들이 미국 바깥의 세상과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정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양차 세계대전에서의 참전과 한국전, 그리고 베트남 전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벌였던 군사작전과 거기에 파병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미국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미국 대중들은 미국 외부의 소식에 별다른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국내정치에 대해서 잘

23) www.cbsnews.com/stories/2009/07/29/politics/main5195604.shtml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오직 25%만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원의원 두 명의 이름을 그리고 오직 29%만이 자신들 지역의 하원의원 이름을 댈 수 있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 처음 10개의 미국 헌법수정조항들이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무지하다.²⁴⁾

왜 미국인들은 국내정치나 국제정치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해 무지할까? 사실 민주주의 제도와 발달된 지방자치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적인 대중들이 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들은 지역수준에서 연방수준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거를 주기적으로 치러야 하기에 싫든 좋든 각종 정치적 캠페인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또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미국의 안과 밖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신들의 안방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인터넷에서부터 위성 TV에 이르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냉전의 종식 후 등장한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체제와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 지도자들의 다양한 레토릭,²⁵⁾ 세계 각지의 미군기지에 파병되어 나간 미군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을 여러 가정들을 고려해 보면, 국제문제에 무지한 미국인들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무지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이미 아몬드(Almond)나 리프먼(Lippman)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였다.²⁶⁾ 혹자는 미국의 발전된 언론 매체들과 평균적인 교육수준으로 보아 이런 주장은 좀 과장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가 보여주듯, 최소한 다른 선진국 대중들에 비교해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국제문제에 무지함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²⁷⁾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서도 침예한 정치적

24) Michael X. Delli Carpini and Scott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307-328.

25) 일극체제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26) Gabriel Almond,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court, Brace, 1950); Walter Lippman, *Public Opinion* (New York: Mcmillan, 1949).

쟁점이 되었던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가 크게 변화한 것 같지도 않다. 2012년 2월 8일 공영방송인 PBS의 PBS NewsHour에 등장한 브레진스키(Brzezinski)는 민주주의에서 좋은 대외정책은 국제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달려있다면, 미국 대중의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는 “최저”(abysmal)라고 한탄하기까지 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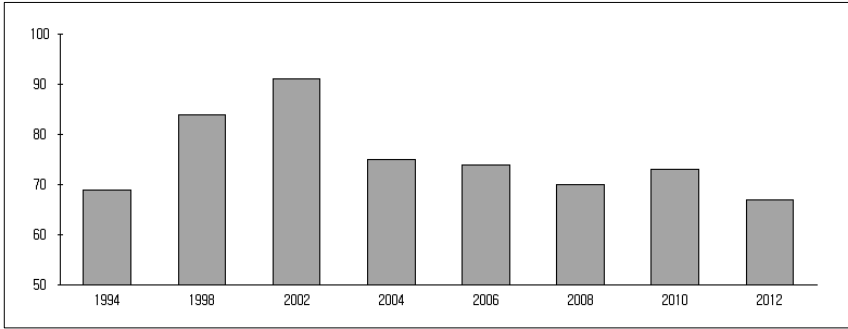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미국인들에게도 2001년의 9/11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국제정치적 현실에 커다란 인식론적 충격을 가했다. 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 지던 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비행기의 돌진과 폭발, 그리고 붕괴, 거의 모든 신문매체 첫머리를 장식했던 충격적 사진들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의문을 품게 했고 이들의 시선을 미국 바깥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제외하고는 - 당시에는 하와이가 미국의 공식적인 주도 아니었다 -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겪어보지 못했던 미국인들에게 9/11은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후 2000년대 미국인들의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 대외정책을 돌아보면서 시행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9/11당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에서 새로이 발견된 취약점에 충격을 받아 안보관련 사항들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와 명백한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항한 군사적 행동에 찬성했음을 보여준다.²⁹⁾ 이 조사에서 드러나듯, 2002년의 91%를 기점으로 비록 감소해 갔지만 아직껏 여전히 60% 이상의 미국인들이 테러리즘을 미국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테러리즘을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아래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27) Shanto Iyengar, Kyu S. Hahn, Heinz Bonfadelli, and Mirko Marr, “Comparing International Affairs Knowledge in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No.3 (2009), 341-358.

28) http://www.pbs.org/newshour/bb/business/jan-june12/brzezinski_02-08.html에서 동영상과 스크립트가 접근이 가능하다.

29)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oreign Policy in the New Millennium: Results of the 2012 Chicago Council Survey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2012), 5.

그림 2. 테러리즘 위협 인식 비율



출처: Chicago Council, Foreign Policy in the New Millennium, 7에서 조합

미국이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이용하여 구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은 규범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무고한 시민들까지 살상하는 사악하고 비겁한 테러리스트들과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을 테러리즘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구원하는 정의로운 미국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야만 미국이 보복을 위해 벌일 군사작전이 ‘정의의 전쟁’(just war)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³⁰⁾ 부시 대통령이 우선 국제정치적 현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프레임(frame)을 제시했다.³¹⁾ 그는 9/11로부터 5일 후인 9월 16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십자군이라는 용어를 불러오면서 “war on terrorism”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내었으며, 9월 20일 TV로 중계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war on terror”라는 말을 공식화 했다. 곧 10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활동이 “Operation Enduring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같은 이름하에 2002년 1월 필리핀과 같은 해 10월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 지역(Horn of Africa)에서도 무장반군과 군사집단들을 대상으로 군사 활동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마침

30)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테러전을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Colin Flint and Ghazi-Walid Falah, “How the United States justified its war on terrorism: prime morality and the construction of a ‘just war,’” *Third World Quarterly*, Vol.25, No.8 (2004), 1379-1399.

31) 언어에서 프레임 또는 개념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George Lakoff,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2004).

내 2003년 3월 “Operation Iraqi Freedom”이라는 작전명하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쟁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착각 하에 미군에 자원입대했고 또 파병되었다.

당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미국이 위협에 처해있는가, 또 왜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기사와 논설들을 쏟아 내었다. 이들은 매일 TV나 신문 지상을 통해 미국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발하는 안보경고를 시각화된 이미지로 제시했으며, 뉴스의 가장 앞부분이나 신문의 첫 장을 당연히 전쟁에 대한 뉴스로 장식했다. 카이퍼스(Kuypers)가 자신의 책 *Busb's War: Media Bias and Justifications for War in a Terrorist Age*에서 시사한 것처럼,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이런 식의 보도양식을 통해 미국의 대중들이 국제정치 현실을 부시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카이퍼스는 당시 언론 매체들의 보도 행태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포출한 편견을 구분해 내었는데, 상황의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매체조차 부시의 주장을 충실히 되풀이 했다는데서 이들이 보여준 편견은 좌우를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약 2달 후 대다수의 매체들이 냉정을 찾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부시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확산함으로써 이후 미국 대중들이 국제정치적 현실을 부시의 프레임에 따라 이해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³²⁾

이러한 미국 대중들의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결과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이 개시되기 한해전인 2002년 실시된 퓨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는 총 62%의 대상자가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오직 28%만이 반대함을 보여준다.³³⁾ 포 4는 당시 이라크 전에 대한 지지도가 흑인과 민주당 당원, 그리고 2000년도 대통령 선거

32) Jim A. Kuypers, *Busb's War: Media Bias and Justifications for War in a Terrorist Age* (Rowman & Littlefield, 2006).

33)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Midterm Election Preview: Americans Thinking about Iraq, but Focused on the Economy* (October 10, 2002), 12.

당시 고어에 투표했던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상에서 50% 이상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도

	찬성(%)	반대(%)	모름(%)
총	62	28	10
남성	68	24	8
여성	56	32	12
30세 미만	65	27	8
30-49세	66	26	8
50-64세	61	28	11
65세 이상	50	34	16
공화당원	80	10	10
민주당원	49	43	8
무소속	61	30	9
2000년도 대선			
부시 투표자	79	12	9
고어 투표자	45	45	10

출처: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Midterm Election Preview: Americans Thinking about Iraq, but Focused on the Economy* (October 10, 2002), 12.

이렇게 구성된 현실 속에서 폭스채널은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들이 일단 부시의 프레임으로 국제정치 현실을 보게 됨에 따라 냉정을 찾은 다른 매체에 비해 지속적으로 부시의 프레임에 일치하는 편견을 표출하는 폭스채널이 이들이 이해하는 현실과 더 잘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뉴스방송 화면 좌측 상단 한 구석에 펠릭스는 성조기를 집어넣기 시작한 폭스뉴스 채널은 이 시기 시청자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결국 2003년을 기점으로 전통의 CNN을 모든 뉴스 영역에서 추월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뉴스채널이 될 수 있었다. 폭스사의

일관되고 공격적인 애국주의 우파적 편견의 표출이 미국 대중들이 이해하는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기에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이 객관적 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러스틱(Lustick)이 자신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보여주었던 편견이 진실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후에 밝혀졌듯이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한 이라크전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2006년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부시조차 “내 일 중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는 이라크를 대테러전과 연계시키는 것”³⁴⁾이라고 토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 매체들은 자신들의 보도행태를 통해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실을 미국에 대한 과장된 위협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 분명 일조했다. 이렇듯 과장된 위협이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현실을 구성함으로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정당화될 수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당시의 대외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객관적인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한 무지 사이에는 일정정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2002년의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가 어떤 유형의 응답자들이 이라크 전에 대해 반대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평소 국제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이들일 수록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자들의 비율(49%)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의 비율(17%)보다 3배 정도 높지만, 실제로 이 이슈에 더 높은 수준의 관심도와 관여도를 보여주는 이들은 반대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군사행동과 관련된 정치논쟁을 전하는 뉴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선거유세에서 후보자들이 군사 활동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집단이다. 이런 반면, 이라크에 대한 군사 활동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9/11을 계기로

34) 부시는 “...one of the hardest parts of my job is to connect Iraq to the war on terror”라고 2006년 9월 6일 CBS News의 Katie Couric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스크립트는 http://www.cbsnews.com/2100-500923_162-1980074.html 에서 볼 수 있다.

35) Ian S. Lustick, *Trapped in the War on Terro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6).

형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한 듯하다. 퓨리서치 센터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이들은 대부분 이라크 체제와 테러리즘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또 이라크가 미국이나 세계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인식을 주된 근거로 미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결국 명분 없는 군사 활동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의 배경에는 탈레반과 후세인 정권이 과거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동맹 파트너였다는 맥락은 탈각된 채 오직 9/11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 대한 과장된 위협을 주축으로 구성된 현실은 여러 수준에서 미국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제 현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9/11 이전까지 미국 공항들에서의 보안 검색은 각 항공사나 이들과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9/11을 계기로 미국은 강화된 보안 검색을 위해 그해 11월 교통안전국(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을 설치했으며 2003년에는 이를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이관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과거보다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했으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에도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강화된 검색조치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여기저기서 야기했으며, 결국 2010년 한 여행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검색하는 교통안전국 요원에게 “당신이 내 거기를 건드리면 당신이 체포당하도록 할 거요”라는 말까지 하도록 만들었다.³⁷⁾ 또한 2001년 9월 이후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현저히 증가한 회교도나 남아시아계 또는 중동계로 보이는 여행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도 그 실효성과 적법성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은 대다수 미국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인종 프로파일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게 하고 있다.³⁸⁾

36)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Midterm Election Preview*, 12-14.

37) 2010년 샌디에고 공항에서 존 타이너(John Tyner)라는 승객이 “If you touch my junk, I’m going to have you arrested”라고 내 뱉은 말로, 당시 미국에서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방식을 두고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38) 2010년 실시된 USA Today와 Gallup에 의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인종 프로

딱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이지 않고, 안전을 위해 약간의 불편을 감소할 자세가 되어 있는 미국인이라면 이렇듯 변화된 관행을 그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 메이저 리그 야구장에서도 7회가 끝날 때마다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분명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9/11 직후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전해진 소식과 해석을 기초로 국제정치적 현실을 구성한 다수의 미국인들이 자신들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다른 미국인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상적 힘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잘 알려진 사례로서, 텍사스 출신의 3인조 여성으로 구성된 미국의 컨트리음악 밴드인 디시 칩스(Dixie Chicks)가 겪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03년 당시 런던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멤버인 내털리 메인스(Natalie Maines)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라는 언급을 공연 중에 내뱉고 말았다. 이 언급이 미국에 알려지자마자 이들은 곧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음반에 대한 보이콧이 시작되었고 이들의 음악이 청취자들의 향의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대중적 인기가 급락했다.³⁹⁾ 결국 메인스는 이 언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만 했다.⁴⁰⁾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는 사회언어적으로 구성된 정치 현실이 개별적인 미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미국과 많은 미국인들이 9/11을 계기로 구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은 자기 충족적(Self-fulfilling)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 현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

파일링에 찬성하는 비율은 71%, 반대하는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Susan Page, “Poll: Most support ethnic profiling in air security,” *USA Today*, 13 January 2010) 기사를 참조.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nation/2010-01-12-poll-terrorism-obama_N.htm?csp=24&RM_Exclude=Juno.

39) www.cnn.com/2003/SHOWBIZ/Music/03/14/dixie.chicks.reut.

40) articles.cnn.com/2003-03-14/entertainment/dixie.chicks.apology_1_children-and-american-soldiers-dixie-chicks-singer-huge-anti-amercan-sentiment?_s=PM:SHOWBIZ.

된 대외정책은 자기파괴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들이 상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벌였던 해외 군사작전 등을 포함한 많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실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벌인 일들이 재생산해 낸 더욱 더 도전적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3월 19일 시작된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불과 2달도 채 안되어 끝이 났다. 그 해 5월 1일 부시 대통령 자신이 미국 항공모함 USS Abraham Lincoln호에 직접 비행기를 몰고 착륙한 뒤 승전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선언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또 그 외에 9/11 테러공격 단체인 알카에다가 은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 지역들에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에서조차 감소했으며,⁴¹⁾ 지속되는 미국의 군사적 활동은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미국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당연히 이런 위협이 재생산 되면서 미국이 받을 뻔 시기는 점점 더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스스로가 자신이 사회언어적으로 구성된 현실 속에 인식되던 위협을 군사적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위협으로 전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미국이 구성한 국제정치적 현실은 자기파괴적이기까지도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들이 재생산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스스로의 물리적 힘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2011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등지에서의 군사작전을 통해 총 22만 5천명이 희생되었으며, 3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⁴²⁾ 이 비용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41) 퓨리서치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은 2002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일본 등 거의 전 동맹국에서마저 감소했다. 보다 상세한 수치는 Pew Research Center, "America's Image Slips, But Allies Share U.S. Concerns over Iran, Hamas," <http://www.pewglobal.org/2006/06/13/americas-image-slips-but-allies-share-us-concerns-over-iran-hama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Eisenhower Study Group, "The Costs of War Since 2001: Iraq, Afghanistan, and Pakistan - Executive Summary," *Eisenhower Research Project* (June 2011). <http://coto2.files.wordpress.com/2011/07/costs-of-war-2001-2011.pdf>.

실제 위협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한 계속 늘어날 운명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해 나온 한 미국 의회 보고서는 2011년 미국 의회가 총 1조 2천8백3십만 달러를 군사작전을 위한 예산으로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 중 8천 6십억 달러가 이라크에 4천 4백 4십억 달러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⁴³⁾ 어느 식으로든 군사작전들이 빨리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미국은 더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008년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전 지구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그 극복을 위해 역시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권국(hegemon)의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 때 이미 많은 자원을 전쟁에 쏟아 부은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⁴⁴⁾

V. 결론: 언론 자유의 긍정적 가치와 성찰하지 않는 언론

언론의 자유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분명 근대 민주주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자유는 긍정적 측면이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안 된다. 특히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언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3) Amy Belasco, "The Cost of Iraq, Afghanistan, and Other Global War on Terror Operations Since 9/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RL33110 (29 March 2011). <http://www.fas.org/sgp/crs/natsec/RL33110.pdf>.

44) 패권안정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성과 국제체제의 안정성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렇기에 국제경제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대부자로서 패권국의 역할은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와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등을 참조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항상 긍정적인 일 수만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나 체계적인 논의는 정치학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원칙이다. 하지만 언론자유가 바람직스러운 긍정적인 가치로 계속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또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를 누리는 언론 매체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작업 없이 무조건적으로 언론의 자유만 되된다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론 매체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근거로 해석한 현실에 종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잘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중 하나인 미국의 사례, 특히 2000년대 미국 언론 상황을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당시 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언론자유가 항상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서의 사례에서처럼,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는 곧 편견 표출의 자유로 시현되기 마련이다. 이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굳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여하튼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⁴⁵⁾ 하지만 현실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편견이 거대자본으로 뒷받침되는 언론매체에 의해 말싸움 또는 언어투쟁(verbal fighting) 속에서 구상적 힘(representational force)으로 작동한다면, 또 그럼으로써 '진실'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을 그 편견에 맞추어 사회언어적(sociolinguistic)으로 구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편견 내지 현실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나 해석 또는 비판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내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묵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때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45) 예를 들어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개념을 보라. Robert A.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과 Robert 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특정 집단의 세계관이나 이익을 대변하여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릇된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담은 어느 한 편견이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 전파되고 하나의 객관적 진실로서 우세한 지위를 얻게 될 때, 언론자유와 부정적 역할은 실제 생활에서 파괴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언론의 자유 탓으로 돌리면서 언론의 자유 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 매체들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관련성이 없으며 또 대량살상무기도 이미 폐기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객관적 현실을 파헤치고 전달하기 보다는, 이 반대를 주장하는 부시 정부의 거짓 주장을 마치 진실인양 전했다. 이들은 리더(Reider)의 표현을 빌면 “이빨 빠진 감시견”(toothless watchdogs)에 불과했던 것이다.⁴⁶⁾ 어쩌면 이들은 이미 군부나 군수산업, 그리고 연예산업과 이미 결합하여 군산복합체가 발전한 “군산연연 네트워크”(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network)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도 모르겠다.⁴⁷⁾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언론 매체들 간의 경쟁 속에서 진실의 전달보다는 생존과 성장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에 이들이 그랬을 수도 있다.

오늘날의 미국 뉴스 프로그램들을 보면 별다른 비판적 시각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일단 프로그램의 첫 부분은 여러 명의 사회자들이 나와 인사를 전하면서 서로 환한 웃음을 띠 채 농담들을 주고받으며 시작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현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뿐, 보다 깊은 구조적 수준에서의 논의나 비판으로는 거의 나아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들이 전하는 현실은 결코 여러 문제로 가득한 심각한 세상이 아니다. 이들이 항상 진지하고 엄숙하며 또 날을 세운 비판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매체들이 전하는 세상은 너무 말랑말랑한(soft) 경향을 보인다. 한 예로 2009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해진 뉴스 보도에

46) 이 표현에 대해서는 Rem Rieder, “Toothless Watchdogs: The Media, and Abu Ghraib,” *American Journalism Review*, Vol.26, No.4 (2004), 6.

47) 이 개념에 대해서는 James Der Derian, *Virtuous War: Mapping the 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Network*,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9).

대한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한 주 동안 5명의 미군 사상자를 가져온 이라크에서의 자살폭탄 사건이나, 핵 사찰단원들에게 떠날 것을 요청한 북한정부의 결정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심화되고 있는 전쟁들보다도, 에드워드 케네디(Ted Kennedy) 상원의원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오바마 대통령의 애완견 얘기가 톱뉴스의 지위를 더 많이 차지했던 것이다.⁴⁸⁾ 이렇게 볼 때, 바움(Baum)의 주장처럼 대외문제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무지나 무관심은 상당부분 미국 언론 매체들이 뉴스를 전하는 방식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 매체들, 특히 TV 방송국들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이슈들을 수많은 연예오락성을 지향하는 뉴스 프로그램과 토크쇼들을 통해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말랑말랑하게 다루어진 현실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까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는 품기 힘들다.

2000년대 미국의 언론 상황은 언론의 자유가 아무런 성찰 없이 시행될 때 언론 자유의 순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9/11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대외문제에 관해 무지했음은 사실일 것이다. 아마 그랬기에 9/11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또 중간에 8년에 걸친 민주당의 집권이 있었다 해도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보수주의적 편견을 이미 수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류 언론 매체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을 다르게 전하고 보다 비판적으로 해석했다라면, 부시 정부가 자신의 네오콘적 세계관을 대외정책을 통해 그런 식으로 용이하게 투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 매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는 매체들마저 9/11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기성찰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물질 자원의 낭비와 인적 희생이었으며,

48) 이라크 전 소식은 16회, 북한 소식은 23회, 아프가니스탄 소식은 12회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애완견인 보(Bo) 소식은 24회나 톱뉴스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분석은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The Dog Days of Spring," <http://www.journalism.org/TheDogDaysofSpring>.

49) Matthew A. Baum, *Soft News Goes to War: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New Media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테러 위협의 세계적 확산이었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바라는 식으로 국제정치적 현실을 사회언어적으로 구성해준 미국 언론 매체들이 없었더라면 200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지지는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9월 10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10월 22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11월 17일

초록

미국 언론의 언어투쟁과 미국 (국제)정치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

정 성 원

2001년 발생한 9/11로부터 2003년 이라크 전 개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행한 역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당시 미국 언론 매체들이 관련 사실들과 사건들을 보도했던 양태 덕분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이어진 군사작전들은 그 정당성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된 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란 편견 표출의 자유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언론 자유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각각 자신들의 편견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잘 표출해 올 수 있었다. 언론의 자유를 편견 표출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언론의 역할도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언론 매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현실은 객관적 실재라기보다 각자 자신들의 편견에 근거해 해석한 현실이다.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현실에 노출된 대중들이 이를 현실적인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는 대중들 사이에서 현실을 사회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현실을 사회언어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주로 구상적 힘을 매개로 하는 언어투쟁에 의존한다. 현실을 언어를 통해 나타내는 화자들은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나 주체를 규정하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존재론적 안정을 추구한다. 그렇기에 이들 사이에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가 자신들 마음대로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아 또는 주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변하는 현실에 대한 타자의 완전한 굴복을 지향하는 언어투쟁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선호된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언론 상황은 이 같은 언어투쟁을 통해 보수주의적 편견이 득세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벌일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대외정책을 고도로 규범적인 프레임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으며, 진보적인 매체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 언론 매체들도 부시의 프레임을 따라 국제정치적 현실을 해석했다. 그 결과는 부시정부의 대외정책과 이어진 군사작전들에 대한 전국적 지지였다. 그러나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상이한 현실을 대변했던 이들의 목소리는 언어투쟁을 통해 무시되고 억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식된 국제 정치적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대외정책은 미국의 지도력과 물리적 능력에 해를 끼치게 됨에 따라 자기파괴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기 성찰을 결여한 언론의 자유는 커다란 부정적인 부작용을 갖는다.

□ 주제어 : 9/11, 이라크 전, 언론자유, 미국 언론 매체, 미국 대외정책, 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 언어투쟁, 프레임

Abstract

Verbal Fighting in American Media and the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in the United States

Chung, Sung-Won

What mainstream American media had done from the September 11 in 2001 to the outbreak of the Iraq War in 2003 calls for critical reflection on freedom of speech. For the way they had reported relevant facts and events at that time made it possible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mobilize the wide support from the American public in spite of the many questions rai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legitimacy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ensuing military operations.

Freedom of speech can be understood as free expression of bias. The United States has relatively well institutionalized and ensured freedom of speech so that mainstream American media have been able to express their respective biases almost with no constraints. As freedom of speech can be considered the capacity to express their biases freely, the role of media can also be understood in terms of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reality. What media present to us as reality are not an objective reality; rather they are what they interpret as reality based on their own biases. As they are taken as real by those who are exposed to what media deliver, they socially and linguistically constitute reality among them. The process of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reality mainly depends on verbal fighting via representational force. Narrators who represent reality verbally define their Self or subject in the reality that they believe to be real thereby seeking for their ontological security. So rational discussion or persuasion between them is difficult to expect. It is because accepting the reality in which their own beings are not defined as they like can make their own

Self or subject insecure. Therefore, verbal fighting, which aims at full submission of others to the reality I represent, is preferred as a more appropriate communicative strategy.

The media situation in the early 2000s showed that conservative bias gained grou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verbal fighting. First of all, President Bush began to describe his foreign policy in highly normative frame in order to justify what he would do; almost every American media, including liberal media, interpreted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following Bush's frame. The result was nation-wide support for Bush's foreign policy and the ensuing military operations, while voices of those who represented different reality from more critical viewpoints were unheeded and oppressed through verbal fight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widely perceived by many Americans and the foreign policy devised to back the reality in the early 2000s have turned out to be self-destructive as they have brought significant damage to United States' leadership and its material capability. Freedom of speech without self-reflection has some huge negative side effects.

□ Key words : 9/11, Iraq War, Freedom of Speech, American Media, U.S. Foreign Policy,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Reality, Verbal Fighting, Frame

참고 문헌

- Abrams, Richard M. 2006. *America Transformed: Sixty Years of Revolutionary Change, 1941-20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mond, Gabriel. 1950.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court, Brace.
- Ansolahehere, Stephen, Roy Behr, and Shanto Iyengar. 1993. *The Media Game: American Politics in the Television Age*. New York: Macmillan.
- _____, Rebecca Lessem, and James M. Snyder, Jr. 2006. "The Orientation of Newspaper Endorsements in U.S. Elections, 1940-2002."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 No.4. 393-404.
- Arnold, R. Douglas. 2004. *Congress, the Pres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nett, Michael and Raymond Duvall. 2005.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1. 39-75.
- Baum, Matthew A. 2003. *Soft News Goes to War: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New Media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lasco, Amy. 2011. "The Cost of Iraq, Afghanistan, and Other Global War on Terror Operations Since 9/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RL33110* (March 29). <http://www.fas.org/sgp/crs/natsec/RL33110.pdf>
-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Anchor Books.
- Bhaskar, Roy. 1997.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Berso.
- _____. 1998. *Possibility of Naturalism: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Human Sciences*. London: Routledge.
- Carpini, Michael X. Delli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llier, Andrew. 1994.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London: Verso.

- Cook, Timothy. 1997. *Governing with the New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hl, Robert A. 1956.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2.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Paul A. Beck, and Robert Huckfeldt. 1998. "Partisan Cues and the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2, No.1. 111-126.
- Derian, James Der. 2009. *Virtuous War: Mapping the 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Network*, 2nd ed. New York: Routledge.
- Deutsch, Karl W. 1967. "On the Concepts of Politics an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21, No.2, 232-241.
- Edwards, George C. III and B. Dan Wood. 1999. "Who Influences Whom? The President, Congress, and the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3, No.2. 327-344.
- Eisenhower Study Group. 2011. "The Costs of War Since 2001: Iraq, Afghanistan, and Pakistan – Executive Summary," *Eisenhower Research Project* (June). <http://costo2.files.wordpress.com/2011/07/costs-of-war-2001-2011.pdf>
- Flint, Colin and Ghazi-Walid Falah. 2004. "How the United States justified its war on terrorism: prime morality and the construction of a 'just war'." *Third World Quarterly*, Vol.25, No.8. 1379-1399.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ruc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oseclose, Tim. 2011. *Left Turn: How Liberal Media Bias Distorts the American Mind*. New York: St. Martin's Press.
- _____ and Jeffrey Milyo. 2005. "A Measure of Media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0, No.4. 1191-1237.
- Habermas, Jürgen. 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Street.
- _____.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MIT.
- Huysmans, Jef. 1998. "Security! What Do You Mean?: From Concept to Thick Signifi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2. 226-255.
- Kapstein, Ethan B. and Michael Mastanduno, eds. 1999.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ypers, Jim A. 2006. *Busb's War: Media Bias and Justifications for War in a Terrorist Age*. Rowman & Littlefield.
- Lakoff, George.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 Lebow, Richard Ned. 2005. "Power, Persuasion and Justi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3, No.3. 551-581.
- Lichter, S. Robert, Stanley Rothman, and Linda S. Lichter. 1986. *The Media Elite: America's New Powerbrokers*. New York: Hastings House.
- Lippman, Walter. 1949. *Public Opinion*. New York: Mcmillan.
- Lustick, Ian S. 2006. *Trapped in the War on Terro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nners, Ian. 2002. "European [security] Union: from existential threat to ontological

- security.” *IIS Working Paper*.
- Mattern, Janice Bially. 2005.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y, Crisis and Representational Forc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5. “Why ‘Soft Power’ Isn’t So Soft: Representational Force and the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Attraction in World Politic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3, No.3. 583-612.
- McSweeney, Bill. 1999.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klethwait, John and Adrian Woodridge. 2004. *The Right Nation: Conservative Power in America*. New York: The Penguin Press.
- Mitzen, Jennifer. 2006.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 No.3. 341-370.
- Page, Susan. 2010. “Poll: Most support ethnic profiling in air security,” *USA Today*, (Jan.13).http://usatoday30.usatoday.com/news/nation/2010-01-12-poll-terrorism-obama_N.htm?csp=24&RM_Exclude=Juno.
- Patterson, James T. 2005. *Restless Giant: The United States from Watergate to Bush vs. G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w Research Center. 2006. “America’s Image Slips, But Allies Share U.S. Concerns over Iran, Hamas,” <http://www.pewglobal.org/2006/06/13/americas-image-slips-but-allies-share-us-concerns-over-iran-hamas/>
- Pew Research Center’s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04. “2004 Annual Report- Cable TV Audience: Cable News and the War with Iraq in 2003,” (March 15). <http://www.journalism.org/node/761>
- Povich, Elaine. 1996. *Partners and Adversaries: The Contentious Connection Between Congress and the Media*. Arlington, VA: Freedom Forum.
-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12. “The Dog Days of Spring.” <http://www.journalism.org/TheDogDaysofSpring>.

- Rieder, Rem. 2004. "Toothless Watchdogs: The Media, and Abu Ghraib." *American Journalism Review*, Vol.26, No.4. 6.
- Risse, Thomas. 2000.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1. 1-39.
- Sayer, Andrew. 2000. *Re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SAGE.
- Steel, Brent J. 2008.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Routledge.
-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2. *Foreign Policy in the New Millennium: Results of the 2012 Chicago Council Survey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2002. *Midterm Election Preview: Americans Thinking about Iraq, but Focused on the Economy* (October 10).
-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mpany, 304 U.S. 144 (1938).
- Weaver, D.H. and G.C. Wilhoit. 1996. *American Journalist in the 1990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인터넷 사이트 >

- articles.cnn.com/2003-03-14/entertainment/dixie.chicks.apology_1_children-and-american-soldiers-dixie-chicks-singer-huge-anti-american-sentiment?_s=PM:SHOWBIZ
- en.rsfo.org
- 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 stateofthedia.org/2012/cable-cnn-ends-its-ratings-slide-fox-falls-again/cable-by-the-numbers/
- www.archives.gov/exhibits/charters/constitution.html
- www.cbsnews.com/2100-500923_162-1980074.html
- www.cbsnews.com/stories/2009/07/29/politics/main5195604.shtml
- www.cnn.com/2003/SHOWBIZ/Music/03/14/dixie.chicks.reut
- 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OIP%20Scores%20and%20Status%201980-

2012.xls

www.gallup.com/poll/1633/Iraq.aspx

www.pbs.org/newshour/bb/business/jan-june12/brzezinski_02-08.html

www.rushlimbaugh.com